



대한민국 전력R&D의 산실로 '우뚝' ...KEPRI 창의적인 전력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 견인

KEPRI (한전 전력연구원)

R&D분야 정부경영평가 5년 연속 1위. 한전 전력연구원의 최근 성과이다. 이 같은 공인평가는 KEPRI의 위상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고품질의 전력공급을 위한 창의적인 전력기술 개발과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전력연구원은 지난 1961년 한국전력 전기시험소로 출범한 이후 1993년 대덕연구단지 입주, 1995년 7월 전력연구원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면서 우리 전력산업 연구개발에 커다란 획을 긋는 다양한 실적들을 쏟아내고 있다. 산하에 4개 연구소(녹색성장연구소, 원자력발전연구소, 수화력발전연구소, 송배전연구소)와 2개 센터(엔지니어링센터, S/W센터), 2실(연구전략실, 연구지원실) 2팀(NRC-DC추진팀, 품질혁신팀)으로 조직되어 있는 전력연구원의 비전은 역시 최상위의 글로벌 연구원 등극이며, 전력기술의 새 지평을 열어 이를 실현하겠다는 각오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력IT, CCS, 스마트그리드 등 친환경 연구개발에 주력하면서 한전의 글로벌 엔지니어링 Company 달성의 주역임을 선언한 KEPRI의 열정적인 행보가 전력산업계의 주목을 새롭게 끌고 있다. 전력산업의 미래기술 확보와 성장동력을 창출해 내고 있는 전력연구원의 핵심 조직과 중점 수행 사업 등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글 쓰는 순서

1. 녹색성장연구소, 엔지니어링센터
2. 원자력발전연구소, 수화력발전연구소
3. 송배전연구소, S/W센터, 연구지원실, 연구전략실

녹색성장연구소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 구현’을 타깃으로 미래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에너지 효율개선과 생태자원의 청정성 향상에 주력하기 위한 방침으로 2009년 3월 신설되었다.

이를 위해 녹색성장연구소는 환경 친화적 전원개발을 위한 청정발전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 청정 에너지를 확보하는 한편, 전력수송 및 에너지변환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미래형 전력신소재 및 전력기기 개발,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등에 진력하고 있다.



송영철 소장 인터뷰

연구소의 비전이 “녹색에너지 실용화 기술 선도를 통한 글로벌 리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녹색성장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은 중대한 변화이고 우리에게겐 기회입니다. 이 같은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미래성장 영역을 선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설정한 비전을 바탕으로 KEPCO의 8대 녹색기술 관련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녹색기술의 연

구개발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100여명에 이르는 전문 인력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비전으로 선포되었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은 비로소 녹색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우리 KEPCO에서는 이에 앞서 ‘2020 Global Top Energy and Engineering Compony’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수립하였고, 우리 연구소가 설립된 배경도 저탄소 녹색기술 선도과 회사의 비전달성 기반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장기적인 포석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회사의 녹색기술 선도를 위해 CCS, 전기자동차 충전, 전기에너지 주택 및 스마트 그리드 분야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풍력, 파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와 전력저장 및 청정발전 분야,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배연탈황 및 배연탈질 기술개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가발전과 회사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미래 녹색기술 분야의 리딩 히터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무겁습니다만, 한편으론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연구개발 성과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핵심조직으로서의 자부심 또한 매우 높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연구소가 주력해 온 녹색기술이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개발 기술의 상용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이 글로벌 마켓을 호령하는 날이 가까운 시일 내에 펼쳐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미래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추적 역할 수행...녹색성장연구소

한전이 녹색성장 동력화가 가능한 녹색기술에 2조 8천억 원을 투자하고, 국내 CDM 사업을 적극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강력히 천명한 가운데, 녹색성장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8대 녹색기술로 선정된 전략과제를 선택화,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다. 연구소는 8대 녹색기술 개발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 창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선도 및 신성장 동력창출의 3대 혁신목표를 수립, 운영 중에 있다. 이를 위해 10대 핵심전략기술을 전략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충전기술 및 고효율 파력발전기술의 경우, 올해에 성과달성을 조기화 하겠다는 목표로 연구에 임하고 있다. 연구소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야는 IGCC 등 5개 분야로서 인프라 확충 노력은 물론 주도적으로 녹색비전 실현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녹색성장연구소는 KEPCO가 내세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정예화한 첨병에 다름 아니다. 조직 및 인적구성 현황과 수행 중인 주요 연구현황과 전망은 다음과 같다. 전 지구적인 현안으로 등장한 대기환경관리 연구개발 분야에서 연구소의 진가는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CCS(Carbon Capture



Storage) 분야에서는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CO₂를 포집하여 저장하기 위한 포집기술 개발 및 지중저장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CO₂포집은 건식과 습식방식의 흡수제와 공정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소규모 발전소 적용연구가 하동화력(건식 0.5MW)과 보령화력(습식 0.1MW)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두 기술에 대한 10MW 실증연구가 지난해 11월에 착수되어 오는 2014년 완료될 예정이며, 2018년 이후 300MW급 이상의 실규모 설비의 상용화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CO₂를 직접 지

중에 저장하는 지중저장기술은 현재 동해 울릉분지 지역을 대상으로 지중저장 기본설계를 수립중이며, 2012년 이후 파일럿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CCS는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수요 저감, 비탄소 에너지원 개발과 더불어 온실가스 저감기술 중 가장 적극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분야**에서도 연구소의 열정이 쉼 없이 발휘되고 있다. 연구소는 전기자동차 개발 분야에서 충전기와 충전인프라 및 운영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충전 인프라 및 운영기술 개발부문에 있어서는 전기자동차 보유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충전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충전인프라 설비 구축에 필요한 기반기술 및 충전 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프라 운영 시스템 최적화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전력계통과 원활한 연계가 가능한 충전 인프라 운영 시스템을 구현하며, 설계 표준화 및 개방화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 및 유지보수 용이성을 도모하고 있다. 고객 지향적인 다양한 사업 운영모델 및 운영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 녹색성장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급속 및 완속 및 홈 충전기 등 다양한 형태의 우수한 성능의 충전기를 개발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 분야에 글로벌 수준의 통합기술 표준규격을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성능 검증시험을 완료하여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성장동력의 선두주자로 각광받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전기에너지 주택**도 주된 연구개발 분야이다. 전기에너지 주택은 가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를 전기로 충당하는 주택으로서 전기의 효율적인 에너지소비를 위한 네트워크 IT기술을 융합시킨 시스템기술이다. 전기에너지 주택분야에서는 주택 내 냉·난방, 급탕, 취사 등에 사

용되는 모든 에너지를 전기로 해결하고 총에너지의 30% 저감과 냉·난방 에너지의 50% 저감을 목표로 하는 전기에너지 주택 표준화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2호의 전기에너지 시범주택을 준공하고 건물 총에너지에 대한 성능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오는 2012년 한국형 표준모델에 대한 개발을 완료한 후 2020년 국내에 보급을 목표로 연구하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분야에서는 전력수송 및 배급에 IT를 접목시켜 송배전망을 지능화하기 위한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유무선 통신 통합 표준 플랫폼 개발 및 보안관계 기술정립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IEC 국제표준 지원 고속전력선 통신 칩을 개발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국내 해역의 해상 풍력발전 플랜트 구축을 위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에는 서해안의 부안-영광 해역에 해상 기상타워를 설치하여 국내 최초로 해상의 풍력과 관련한 데이터를 취득 중에 있다. 향후 2013년까지 100MW급의 해상풍력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2019년까지 2.5GW의 풍력단지 조성을 목표로 연구를 충실히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미래전력기술 중의 하나인 초전도기술은 매우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한 분야이다. 연구소에서는 초전도를 활용한 초전도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 기술(SFES)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전력저장분야의 경우, 초전도 플라이휠을 이용한 전력저장시스템을 개발하여 회생전력 저장용 모델을 개발하였다. 최근에는 서울 도시철도공사와 도시철도 회생전력 활용을 위한 기술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오는 7월경에는 1MW/100kWh급 플라이휠을 서울시 지하철 역사에 설치하여 실증운전을 수행할 예정이다. 향후 지하철을 운행하고 있는 세계 각국에 이 같은 시스템 수출할 경우,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소는 기대하고 있다.

청정발전분야에서는 바이오가스(매립지가스) 발전 및 순환유동층 보일러의 최적화 운영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설 중인 여수화력 순환유동층 보일러의 성공적인 시운전과 최적운영 달성을 위한 냉각 순환유동층 실험장치와 발전분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매립지가스 이용 MGT 발전/CO₂의 농작물 전환 플랜트를 구축하여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이 외에도 5MW급 바이오가스터빈 전처리용 실증 플랜트 개발 기술은 2013년까지, 저급 연료 및 바이오매스의 상용 혼소기술은 2014년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파력분야에서는 에너지 흡수효율이 세계 동종의 파력발전기 대비 월등히 높은 고효율 파력발전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동해 울진해역에서 2kW급 파일럿 시스템을 설치하여 테스트를 완료한 바 있다. 연구소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50kW급 실증용 파력발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실 해역에서 실증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며, 향후 시스템 검증을 통해 750kW급 상용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배연탈질 폐 촉매에 대한 파일럿 재생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폐 촉매 재생기술에 대한 특허 및 기술이전을 완료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이를 보령화력 3호기 탈질촉매(300m³)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발전용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차세대 녹색 담수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에는 대용량 전기 흡착식 담수화 시스템에 대한 설계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며, 오는 2014년에는 하이브리드 담수화설비(2000톤/1일)에 대한 실증플랜트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개발 외에도 녹색성장연구소에서는 연료전지, 수처리, 로봇, 나노유체 기반 고효율 냉각/유탄매체제조 기술 등도 주요 연구과제로 수행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센터



송성일 센터장 인터뷰

전력설비 예방진단 및 평가, 현안문제 분석 및 해결, 해외사업 지원 등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조직이 엔지니어링센터입니다. 'Global Top 5 Energy & Engineering Company'라는 회사의 비전과 연계해서 지향목표를 '세계 최고의 전력설비 엔지니어링센터'로 설정한 우리 센터는 KEPCO 전력설비 홈 닥터로서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애로점을 반영한 현장지원 성향의 과제를 명확하게 진단하여 해결하는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된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조직이 바로 우리 센터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센터 구성원 전원에게는 해당 전문분야에서의 다양한 현장경험 습득과 전문지식 함양 외에 신기술 개발노력 등 세계 최고수준의 전문가의 자질과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듯 총 5개 팀 7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센터의 경우, KEPCO는 물론 해외 전력사업에서도 최고로 인정받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최정예화된 조직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터빈, 보일러, 발전 등의 분야에서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최신의 정밀진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고장진단 및 예방과 함께 발전설비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한 차원 높게 담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는 최근 기술지원분야가 위축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술지원 국내 1,691건, 해외 54건 등 총 1,745건을 수행함으로써 기술지원 총수익이 163억 원에 달하며 기대효과까지 포함할 경우, 총 906억 원의 실질적인 수익을 실현한 전력연구원 내 유일한 조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알스톰사와의 기술협력을 위한 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발전설비 운영의 기술현안 제공, 최신기술 및 현안문제에 대한 기술자문 등 상호 기술정보교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화학팀의 분석업무와 발전비용 평가시험 등 성능분야에서도 국내 유일의 시험 및 평가 기관으로 공인받아 신뢰성 높은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발전사별로 기술지원 인력을 양성하는 자체 노력을 활성화 하는 등 상황이 다소 호전되었지만, 예전에는 동시다발적인 전력설비의 고장발생시 한정된 인원을 편성하여 현장기술지원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현재도 인력충원이 절실한 사정은 별반 다를 바 없지만,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자칫하면 전문화된 고급 지원기술의 맥이 단절될 우려조차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엔지니어링 분야의 인력양성이 시급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에 센터에서는 올해, 한정된 인원의 제약 극복과 효율적인 기술지원 및 고수의 창출차원에서 단순반복적인 업무는 아웃소싱을 시행하는 한편, 기술지원 고급화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기술지원에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특히, 발전설비 진단시 기계, 전기, 성능, 환경화학 등의 진단분야를 통합하여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도록 삼천포화력 5호기

이외 센터에서는 올해, 한정된 인원의 제약 극복과 효율적인 기술지원 및 고수의 창출차원에서 단순반복적인 업무는 아웃소싱을 시행하는 한편, 기술지원 고급화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기술지원에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특히, 발전설비 진단시 기계, 전기, 성능, 환경화학 등의 진단분야를 통합하여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도록 삼천포화력 5호기

등 총 6개호기에 대한 패키지 기술지원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센터는 수익창출 극대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기술지원 강화, 그동안의 관행을 탈피해서 고장발생 전에 대응하는 ▲예방지원 시스템 구축, 기술지원에 필요한 각종 정보인프라를 강화하고 진단장비 업그레이드 등 기술지원 역량을 한층 높여 나가는 ▲기술지원 역량 일류화 등의 기술지원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고품질, 고객만족 기술지원이 상시 이루어질수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전력계통의 신뢰성 및 설비의 안정성 확보 기여..ENG센터

KEPCO는 발전설비 진단분야를 비롯한 보호설비 시험분야, 환경화학 시험분야, 배전설비 품질보증 분야 조직을 통합하여 전력연구원에 엔지니어링센터를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전력산업 엔지니어링 분야의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여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는 앞선 기술지원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엔지니어링센터의 역할 역시 비례하여 증대되고 있다. 엔지니어링센터에서는 수·화력 및 원자력발전설비와 송변전설비, 배전설비 등 전력설비 전반을 대상으로 상태별 고장원인을 ‘콕콕’ 짚어 진단해주고 이를 해결해 주는 고장원인 분석, 현안 문제점 해결, 고장예방진단 등의 기술지원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전력분야 핵심설비에 대한 장기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심층 분석,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설비고장예방을 위한 각종 진단시험과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설비개선, 원전출력증강, 설계검토 및 Retrofit 기술 등 고급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전설비의 신뢰성과 경제성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전력계통 및 수급안정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발전기계설비 고장원인 규명을 위해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분야별로 체계적인 Root Cause analysis 기술 보유를 기반으로 1년 365일 보일러, 터빈 및 각종 회전기기 등 기계설비 전반에 걸친 고장 원인규명과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전력 그룹사의 메디슨센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 발전 전기설비 예방진단 및 발전소 주요 전기설비인 발전기, 고압전동기, 변압기, 고압케이블 등에 대한 절연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교류전류, 부분방전 등과 같은 고전압 절연 진단시험과 발전기 정밀 육안점검, 철심시험(EL-CID), 회전자 층간단락 시험 및 변압기 특성시험, 내부점검, 절연유 가스분석해석 및 전동기 온라인 상태분석 등 발전소 전기설비 전반에 걸친 건전성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계설비진단팀의 경우, 발전소 기계설비에 대한 상태 진단과 고장발생 원인규명 및 대책수립, 설비개선 등의 엔지니어링 기술 지원을 통해 발전소가 안정적으로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일러전문 분야 △화력터빈전문 분야 △원전터빈전문 분야



○ 기획특집

△복합화력전문 분야 △회전체 진동 진단분야 △구조진동 음향 진단분야 등에서 30년 이상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베테랑급 멤버가 해당 분야에서 전 방위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다. 주요 수행업무로는 가스터빈, 보일러설비 정밀진단, 발전기계 손상해석, 기계 진동/소음 진단 및 분석, 터빈-발전기 출력증강 및 Retrofit기술, 증기터빈 설비 정밀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기설비진단팀은 국내 및 해외의 발전기, 변압기, 전동기 등 다양한 전기설비에 대한 상태점검은 물론 각종 고장 사고에 따른 원인조사 및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명징하게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기 분야 전문가들의 집단이다. 전기설비 정비기술 분야의 경우, 발전소 전기설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신속한 분석과 해결뿐만 아니라 발전기 증간단락 시험기 등 보유 장비를 활용한 설비의 건전성 진단과 함께 회전여자기 국산화, 대용량 발전기 수명평가업무 등과 같은 미해결 현안문제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수행하고 있다. 전기설비진단 분야에서는 발전기, 고압전동기, 변압기, 케이블 등의 절연상태를 평가하여 설비의 건전성을 확인하고 문제점 발생시 교체 등 예방진단 차원의 설비진단을 수행하고 있다.

발전성능진단팀의 경우, 발전성능진단 분야에서는 신규설비 계약보증을 위한 인수성능시험, 기 발전설비의 정밀 열성능진단시험, 전력거래를 위한 발전비용 성능시험,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성능시험 코드개발기술 감리 등의 업무 수행을 통해 최적의 설비상태 인수인계 유도, 연료비 절감 및 판매수익 증대, 국내 KEPIC 기준 확립 등에 기여하고 있다. 이 밖에 가스터빈, 주증기, 재열증기관 진단비용 절감, 터빈 및 발전기 설비 신뢰성 제고 등의 효과를 창출해 내고 있는 비파괴 분야와발전소 계측기의 정밀교정을 통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KEPCO 내부고객 만족도를 시험하고 있는 계측기교정 분야로 조직되어 있다.

환경화학분석팀은 발전 및 송배전설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화학 또는 환경시료 분석, 설비의 부식방지과 화학세정, 발전소 온배수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정, 발전소 온배수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인공위성 영상분석에 의한 해양환경 분석, 수치모델링에 의한 온배수 확산영역 산정과 해양환경 변화예측 등 고부가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해양환경 분야, 발전설비의 열효율 향상 및 부식방지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화학세정 분야, 지난 2000년 국내 최초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변압기 절연유에 대한 화학적 분석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는 ▲절연유

분석 분야가 있다.

올해 환경화학분석팀은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바이오 센서를 활용한 PCBs 분석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한 법령화 추진, 변압기 수명평가를 위한 절연지 열화평가 기술개발, 발전소 온배수 확산 3D 분석기술 개발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기술을 발굴하고 있으며, 연평균 1000여건의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당 분야별로 특화되고 차별화된 엔지니어링센터의 고급인력들은 정밀검증을 통한 설비상태 진단, 최적의 복구 대책 제시, 고장예방 지원을 수행함으로써 유사 고장의 재발방지 및 전력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KEA